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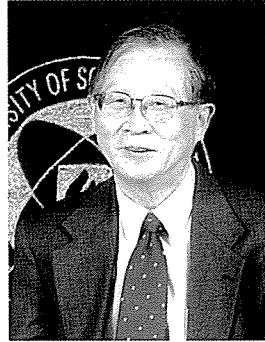
‘이 달의 과학자’에 안치득 소장



안치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방송연구소 소장·사진) 박사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달의 과학자로 선정되었다. 안 소장은 지난 20년간 영상/음성처리 및 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기술 연구개발에도 전념해 왔으며, 월드컵 축구경기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전 세계에 중계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방송기술을 선도한 기술을 인정받았다. 이 달의 과학자에게는 과기부장관상과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안 박사는 디지털TV 및 DMB(이동TV), DVD, MP3 플레이어, 멀티미디어 웹 등에 사용되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라는 핵심기술을 개발해 왔다. 안 소장은 멀티미디어 통신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서 MPEG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및 영상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내 관련학계 및 기업과의 다각적 협력과 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세계적인 산업표준기구인 ISO와 IEC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표준화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안 소장은 1996년부터 ISO와 IEC의 멀티미디어 부호 표준화 그룹인 JTC1 SC29의 한국 의장과 산하의 WG11(MPEG)의 한국 의장, 그리고 ISO와 IEC의 동 회의를 한국대표단장을 맡고 있다. 안 소장은 1980년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를 거쳐 1991년에 미국 플로리다대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198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입사, 현재 동연구원 전파방송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포항공대 총장에 박찬모 교수 선임



박찬모(朴贊謨·68·사진) 포항공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가 포항공대 새 총장에 선임됐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신임 박 총장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화학공학 석사와 영상처리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1989년 12월부터 포항공대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는 가상현실·디지털영상처리 등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WHO총장 취임 이종욱 박사



이종욱(李鍾郁·58·사진) 박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선출직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정식으로 취임했다. 이 박사는 “의료 불평등이 심각한 국제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취약한 사회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강조할 것”이라며 WHO 사무총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 박사는 또 대북 지원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긴급원조 측면에서 WHO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지난 1월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7차례의 표결을 거치는 접전 끝에 승리하고 5월 열린 총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인준을 받았다. 경북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이 박사는 지난 1983년 WHO 남태평양 지역의 도서국가 피지에서 한센병(나병)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WHO와 인연을 맺었다.

**‘닭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에
손욱 장희익 박성래 유명희 이영욱 오세정 이상엽 변대규 이재웅 씨**



한국과학문화재단과 동아일보가 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2003년 제2회 닭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9인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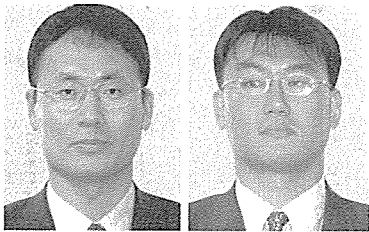
선정된 9인은 학술연구부문에 △포스트지놈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단백질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과기부 프로테오믹스이용개발사업단 유명희 단장 △미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은하진화탐사선갤럭시를 우주로 보낸 연세대 이영욱 교

수 △복합다체계인 물질들의 구조와 특성을 새로운 이론으로 분석해내고 있는 서울대 오세정 교수 △대사공학의 리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가 선정됐다.

산업부문에서는 △디지털셋톱박스 개발과 수출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한(주)휴맥스 변대규 사장 △인터넷 비즈니스의 선두주자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재웅 사장 △삼성그룹의 기초과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삼성종합기술원 손욱 원장이 선정됐다.

사회문화부문에서는 △온생명이론을 실천적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녹색대학 장희익 총장 △한국과학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중을 위한 저술활동을 활발히 벌인 한국외국어대 박성래 교수가 선정됐다. 이는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고 큰 업적을 낸 후보 230여 명 가운데 38명을 우선 선발한데 이어 1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가 최종적으로 9인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2003년 특허기술상 김수용 · 장인섭 씨



김수용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원(사진 좌), 장인섭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사진 우) 외 5명이 2003년도 2분기 특허기술상을 수상했다. 김수용 연구원은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압축·냉각시

킨 대기 공기를 분출해 화재를 순간적으로 진압하는 '가스제너레이터'를 개발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장인섭 연구원 등 5인은 폐수 안에 있는 미생물을 연료로 하는 전지를 개발하여 충무공상을 받았다. 한편 정약용상은 (주)메컬텍 안문희가 '혈압 강하기'를 유선형의 손에 잘 잡히는 디자인으로, 지적영상은 (주)한솔소프트 김윤종씨가 디지털 음악인 미디(MIDI)파일을 여러 가지 악기별로 분할해 연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 수상했다.

**美 원자력학회 학술상
장순흥 교수**



장순흥(張舜興 · 49 · 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올해 미국원자력

학회의 열수력 분야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자력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상을 아시아 지역에서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리_미디어사업단